

‘서울바이오허브’에 138억 투입… 바이오 스타트업 키운다

서울시, 바이오·의료 운영계획

유망기술 기업 27곳 선발 입주 기회 국내외 대·중견기업 간 협력 유치 10곳은 스위스 바젤대와 공동연구

서울시가 미래 게임체인저 중 하나인 바이오·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흥릉 일대에 조성한 ‘서울바이오허브’에 138억 원을 투입한다. 스타트업 발굴·유치부터 오픈 이노베이션, 글로벌 진출 지원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2일 이같은 내용으로 서울 바이오허브에서 올해 추진하는 바이오·의료 R&D 및 사업화 지원 등의 운영계획을 밝혔다.

시는 2017년부터 바이오·의료 산업을 서울의 주요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학과 종합병원, 국책기관 등이 밀집한 흥릉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바이오·의료 분야 신생기업의 해외



서울바이오허브 전경.

/서울시

진출을 지원하는 ‘서울바이오허브글로벌센터’를 개관했다.

◆ 연구지원 등 3대 분야 7개 세부 사업 추진

시는 바이오·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 서울바이오허브에 138억원을 투입해 사업 운영, 성장지원, 연구지원 등 3대 분야 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창업기업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 스타트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급변하는 바이오 산업 환경에서 창업기업들이 사업 초창기부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이오·의료 분야 유망기술 보유기업 27개사를 선발해 서울바이오허브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산업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서울 소재 바이오·의료 산업 분야 재직자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경영 전반의 실무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스위스 바젤대와 공동 연구 추진… 셀트리온·BMS 등과 협력

창업 초기 대·중견기업과의 교류가 어려운 스타트업들의 상황을 고려해, 서울바이오허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기업과 국내외 대·중견기업 간 협력을 유지하는 등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와 관련 시는 3-Track 방식으로 창업기업의 혁신기술과 앵커기업의 수요기술을 매칭시켜 공동연구, L/O(License Out&기술이전), 투자유치 등 기술사업화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 10년 미만의 기업 10곳을 선정해 스위스 바젤대학교와 기술혁신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셀트리온·대원제약·메디톡스 등 국내 대·중견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투자유치 등 비즈니스 협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BMS·노바티스·로슈진단·드레이퍼 등 글로벌 바이오기업과 매칭을 통해 글로벌시장 진출을 견인한다.

◆ 시설장비 부족한 창업기업에 공용 연구 인프라 제공

글로벌 바이오·의료 생태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BIOUSA(미국, 6월), HLTH(미국, 10월) 등 국내외 주요 바이오·의료 컨퍼런스에 창업기업의 참가를 지원하고, 11월에는 서울바이오허브내 오픈콜라보를, 12월엔 허브토크데이와 같은 자체 행사를 통한 정보·인적 교류의 채널도 확장한다.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진출 성장 가속 프로그램’을 실시해 글로벌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전문화된 코디네이션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내 대기업과 협력해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서울바이오허브에 유치하는 ‘글로벌 인바운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시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한 창업기업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을 강화하고, 바이오·의료 산업이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고양국제꽃박람회 ‘국제인증전시회+’ 인증 ‘좋은돌봄 인증’ 요양기관 지원 대폭 확대

국비 지원… 해외 마케팅 박차

‘2025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국제인증전시회+ 인증을 획득하며 국제 박람회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 ‘국제인증전시회+’는 기존국제인증전시회 중 해외 참가업체 비율 10% 이상 또는 해외바이어비율 5% 이상인 전시회를 대상으로 정밀한 평가를 거쳐 부여된다. 이번 인증을 통해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국제 화훼 전문 박람회라는 입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와 함께 ‘2025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주관한 ‘2025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 사업’에서도 유망 전시회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

정에 따라 박람회 측은 국비 지원을 통해 해외 마케팅 활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해당 사업을 통해 해외 바이어 유치, 국제 홍보 확대 등 실질적인 국제화 추진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환 고양국제꽃박람회 이사장은 “국제인증전시회+ 획득은 고양국제꽃박람회의 국제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확인받은 결과”라며 “화훼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박람회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꽃, 상상 그리고 향기’를 주제로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 ‘방문요양기관’도 포함 종사자 인건비·인센티브 등 강화

서울시가 공공성 확보와 돌봄 품질향상을 위해 공인하는 ‘좋은돌봄 인증’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다.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돌봄종사자를 위한 인건비 지원과 인센티브 등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환경도 개선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내 ‘좋은돌봄 인증’ 대상이 기존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안심돌봄가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더해 올해부터 ‘방문요양기관’도 포

함된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는 노인 인권 보호, 시설 안정성과 재무 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요양기관을 서울시가 공인해 주는 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방문요양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서울시내 장기요양기관 2132개소 중 현재 256개소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3년간 운영보조금(1600~1억6800만원)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데이케어센터’에는 야간 운영 인력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난해 2800만원에서 최대 3800만원까지 지원됐지만 올해는 100만원 인상에 최소

2900만원부터 최대 3900만원까지 지급된다. 센터당 대체인력 지원 일수도 연간 12일에서 16일로 확대, 종사자 휴가 등 인력 공백 발생도 막는다.

‘노인요양시설’은 최소 16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안심돌봄가정’은 1800만원에서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두 시설 모두 종사자 1명당 연간 30만원의 복지포인트와 총 5일의 대체인력도 투입한다.

‘방문요양기관’은 좋은 돌봄 인증을 받으면 2인 돌봄이 불가피한 중증 저소득 어르신 돌봄 시 추가 종사자 1인 인건비를 월 최대 8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15 | 해질 / 18:56

4월 3일 (木) 음력 : 3월 6일

수도권 날씨

6~16°C

운동 지수: 4/5
빨래 지수: 3/5
세차 지수: 2/5
외출 지수: 4/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시교육청-美 AESA, 교육협력 의향서 체결

서울시교육청(교육감정근식)은 2일 미국 주별 카운티 교육당국(ESA)과 지역교육감연합회(AASA)를 대표하는 국립 비영리 교육기관인 ‘AESA’가 교육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서울형 수학·과학·융합교육(K-STEM)을 추진하면서 AI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맞춰, 학생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 AESA(Association of Educational Service Agencies)는 STEM 교육 및 기초학력 보장 등 연방 정책에 따라 지역 학구를 지원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ESA의 웨이드 조안 대표와 이사회 25명은 이날 한성과학고 의수학·과학·융합교육(STEM) 교육현장을 방문해 그동안의 한국과 미국 사이의 교육 협력을 확인하고, STEM 교육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한다. /이현진 기자

尹 탄핵 심판 선고일 학교 15곳 ‘임시휴업’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해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들이 임시휴업한다.

2일 서울시교육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확정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의 수업 일정을 조정했다. 선고일인 4일까지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11곳과 광화문 인근 2개 학교, 대통령 관저 인근 2개 학교가 휴업한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미얀마 강진 잇새째 2886명 사망…현지 언론 “4000명 육박” /사진 뉴스스
▲대만 국방부 “포위훈련 첫날 중국 군용기 76대 등 포착”

▲우크라 집권당, ‘여름 대선’ 보도 일축…“계엄 해제 6개월 뒤 가능”
▲EU, 각국 방위력 강화에 ‘격차해소 기금’ 활용 확대한다

▲中 신화통신 “트럼프, 美 우선주의 아닌 美 유일주의”
▲“美국무, 학생 비자 신청자 ‘SNS 사찰’ 지시…반유대주의 단속”